

북아프리카 신흥국 모로코와 통상·산업 협력 확대

- 통상교섭본부장, 모로코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국무장관과 화상 면담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6일(수), 오마르 헤지라(Omar HEJIRA) 모로코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국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방안과 주요 산업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북아프리카 신흥국인 모로코와의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전동차, 배터리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 본부장은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적 위치와 EU·미국을 포함해 50여개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모로코의 강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모로코의 성장 잠재력과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을 결합해 양국 간 통상·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모로코 CEPA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경제협력 촉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에 주목하고,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여 본부장은 전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현지 프로젝트들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선 작년 2월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2.2조원)로 수주한 철도 전동차 사업 관련 현지 공장의 설립과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 중인 리튬 제련소 투자 프로젝트가 모로코 내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부지 확보 관련 모로코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조선 및 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모로코 CEPA는 통상 협력의 지평을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교역·투자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간 CEPA를 신속히 체결하여 북아프리카의 신흥 거점국가인 모로코와 통상·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중엽 (044-203-5720)
		담당자	사무관	이덕미 (044-203-5727)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미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우희승 (044-203-5743)

